

# 무주방문의 해 성공 기원 행사 열려

### ‘쉽과 돌봄’ 금강 숲길 일원서 한마음 걷기 행사 개최... 숲길 홍보·군민 화합

2024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한마음 걷기 행사가 지난 25일 무주읍 금강 숲길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김민서 무주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발전은 바로 건강한 군민, 또 여러분의 애환심에서 시작된다”며 “이 자리가 동력이 되고 무엇보다 무주의 자연과 환경, 숨은 명소를 알리는 계기가 돼서 무주방문의 해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기를, 1천만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개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40분경 무주를 서면마을 소이나루 공원을 출발해 ‘쉽과 돌봄의 금강 숲길’ 일원 왕복 6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2024 무주방문의 해 성공 기원 퍼포먼스와 쓰레기 줍기, 개인 SNS를 통한 금강 숲길 홍보 등에 동참했다.



2024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한마음 걷기 행사가 지난 25일 무주읍 금강 숲길 일원에서 개최됐다.

주민 김 모 씨(57세, 무주읍)는 “평소에도 걷기를 즐겨하는데 오늘 행사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같이 나와봤다”며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관을 보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힐링이어서 오래 기약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곧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6.1.~8.)도 있고 산골영화제(6.5.~9.)도 열리니까 언제라도 무주에 오시면

이곳 금강 숲길도 꼭 한 번 걸어보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 대치리에 위치한 금강 숲길은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2021~2024)돼 지난해 5월 일부(2km~2024년 말 완료) 개통된 둘레길로, ‘쉽과 돌봄’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금강과 어우러진 절경이 일품인 곳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최근 초등학생 견학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인기

### 초등학생 견학 방문객 수 급증... ‘마이역사문화탐방’ 방문 일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최근 초등학생 견학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시뮬레이션’이 인기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안교육지원청 주관 ‘마이역사문화탐방’ 방문 일환으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매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홍삼한방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범용,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한 운영하며 지역의 안전을 한 곳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구축된 곳이다.

이곳에는 공무원 2명, 경찰관 1명, 관제요원 12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678개의 CCTV를 24시간 동안 실시간 관제하고 있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견학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첫날인 5월 20일에는 진안중앙초교와 안전초, 백운초 학생 33명이 방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문 학생들에게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배경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동네 CCTV 찾기, 위기 상황 시 비상벨 사용 방법 교육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은 교육지원청과 앞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안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을 통해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도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늘 군민을 우선에 두고,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군이 되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 무주서 막 올라

### 전국 국내 족구 실업팀 16팀 참가... 11월까지 총 22일간 진행

지난 25일 2024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의 막이 올랐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총 22일(토·일요일 11주 차에 걸쳐 진행)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 대한민족족구협회가 주관(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포츠, AMS,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참가 규모가 전국 국내 족구 실업팀 16팀(남자 12팀, 여자 4팀) 등 총 2,200여명(누적인원) 정도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



린 개막식은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들을 비롯해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흥기웅 대한민족족구협회장, 김진홍 전북특별자치도족구협회장, 송재호 무주군

체육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2024 족구 코리아 디비전 J1 대회와 같은 명망 높은 행사가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가 자연경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족구 등 각종 경기와 훈련을 할 수도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민족족구협회 흥기웅 회장도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고유의 구기 종목인 족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더 나아가 2024 지역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의 성공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 임시이사회 가져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지난 23일 장수군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재단 임원 15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재단이 추진해온 교육사업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1학기 장학

금 대상자 선발 심의(안),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안), 재단 신규사업 추진(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은 총 486명으로 전체 지원 금액은 4억 1천여만원이다. 장학금은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 임시이사회의 모습이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분야별로 △고등학교 성적우수장학금 및 입학 우수자 장학금 76명 △대학생 반값등록금 128명 △대학생 주거지원비 장학금 252명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희망 장학금 24명 △특기장학금 및 예체능 문화인재육성장학금 6명이다.

또한 재단은 이사회 승인으로 장수 꿈의학당·장수학당 참여 학생들에게 강의 교재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학생 3~4학년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등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훈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의 폭을 넓히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지역 장애인 종합검진 20~30% 특별가 적용

### 장수 장애인체육회, 전주 대자인병원과 협약 체결

장수군 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1일 대자인병원 첫 마중길 공감치유센터에서 전주 대자인병원(원장 이병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병관 원장과 장애인체육회 유봉수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상호협력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장수군 장애인 종합검진 20~30% 특별가 적용 및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과 장애인 가족에게도 진료

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상호 유대 강화 및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병관 원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는 환자 중심 철학하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주치의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장애인분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장애인



체육을 통해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자인병원은 세계 최초로 양방, 한방, 인도 이유르베다 의학을 접목한 통합적 미래 의학을 지향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길 걸으며 플로깅 캠페인 전개

### 전춘성 군수·간부공무원 등 40여명, 환경정화 활동 나서

진안군은 지난 24일 전춘성 군수와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진안고원길 11-1구간인 감동버섯길을 걸으며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복합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정화 활동이다.

군은 공무원들이 솔선해 자연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기는 진안고원길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하며 진안고원길의 환경까지 제고와 함께 용담호의 청정 이미지를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플로깅에 참석자들은 용담호 물문화관에서 감동마을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함께 걸으며 도로 및 용담호 주변 곳곳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

기 제거를 실시하고,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의 폐기물 등 200여 킬로그램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행사 당일 감동버섯길 안내를 맡은 진안고원길 사무국은 최근 3년여 동안 진안고원길을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도로 여행객을 대상으로 플로깅 활동 확산을 이끌어 왔다.

전춘성 군수는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공직사회도 플로깅 문화 확산에 동참해 군민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진안, 웰니스 관광의 고장 진안’ 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드림스타트,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추진

장수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드림스타트 아동의 집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나섰다.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전북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12명의 인원이 협력한 이번 ‘행복한 우리집만들기’는 열악한 위생관리로 아동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했다.

군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향후 일상 생활에서 정리, 수납, 청소 등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지도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A 가정은 “아이와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을 계기로 가족 모두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고 전해정 학생, 전북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장수고 전해정 학생은 ‘미 국무성 AYP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해정 학생은 ‘미 국무성 AYP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영외활동에 장수군의 유일한 청소년 통역 지원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캠퍼리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기억이 될 수 있는 연결자 역할을 한 공이 인정받았다.

지난 23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서 전해정 양의 아버지가 표창장을 대리 수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폭염 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 신기술 보급

진안군은 지난 23일 폭염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고랭지 비가림 업체류 안정생산 시범,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등으로 총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유동팬, 양액냉각기, 햇빛 차단망, 송풍 라디에이터 등을 7개소를 지원한다.

업체류 안정생산에 위한 유동팬 사업은 하우스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편차를 낮추고 환기팬을 통해 뜨거운 공기를 하우스 외부로 배출해, 폭염 시 하우스 내부 온도를 30°C 이하 유지, 상추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그 밖에도 시설과수 과일 생육환경 개선으로 송풍 라디에이터 설치 등 폭염에 대비한 시설원예 시설을 지원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부귀면 지사협, 밀반찬 나눔행사 가져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공동위원장 조봉진·박영춘)가 지난 24일 밀반찬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로 식사체질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부귀면 지사협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년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특화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밀반찬 지원대상자는 독거노인 및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30가구이다. 지사협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마을 이장 및 지사협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또한 지사협 위원들은 질 좋은 반찬을 위해 식재료를 직접 선별 및 구매했고 일부 식재료는 진안 다비축산(대표 유인재)과 농협회사법인 늘푸른(대표 김경학)으로부터 돼지고기와 메추리알을 후원받아 식재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추김치, 돼지고기 메추리알 정조림, 멸치와 리고추볶음 등을 지사협 위원들이 각 가정에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